

## “교회 관련 집단감염 발생 건수만으로 접근 안 돼”

기사연, 약 9개월 간의 개신교 사례 분석  
“교회발 집단감염, 다양한 문제 복잡하게 얽혀  
단지 건수만으로 접근하면 갈등 조성할 우려  
언론, 모범적 사례들도 함께 보여줄 필요 있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 김영주 목사, 이하 기사연)이 코로나19 개신교 집단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공개하면서 “집단감염의 발생 건수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연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실을 통해 질병관리청 통합관리시스템에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등록된 종교시설 집단감염 사례를 분석했다.

◆종교별 통계=이에 따르면 이 기간 내 3대 주요 종교(개신교, 천주교, 불교) 시설 관련 집단감염 사례는 총 54건으로, 이중 천주교(성당) 2건(19명), 불교(법

당) 0건인데 반해, 개신교(교회)는 51건(2,953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신천지와 관련된 집단감염 사례(4,714명)는 개신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건별 집단감염 규모와 발생 시기=이들 51개 교회들 중 감염자 수가 10명 이하인 곳은 9개, 11~19명은 15개, 20~49명은 20개, 50명 이상은 7개였다. 개신교 관련 감염이 발생한 시기는 지난해 8월이 17건으로 다른 때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교단 통계=개신교 집단감염의 사례의 교단별 통계는 예상 합동 13건, 예상 통합기하성 4건, 예상 백석기감총례 3건, 예상기감-예장 대산나사렛 1건이었다. 이 밖에 '기타 교단'으로 분류된 것이 12

건이었는데, 이 중 장로교 계통의 교단이 10곳이었다. 미확인 교단은 5곳이었다.

기사연은 특히 “은사주의적(기도원, 방언 신유집회 등) 신앙 성향을 가진 (혹은 표방하는) 교회의 사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례만 14곳으로 교단별 구분보다 더 높은 발생사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교회 규모별 통계=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를 규모별로 나누면, 교인 수 100명 이하의 교회가 20곳(4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확인 12곳(354명), 100~500명 10곳(223명), 1천 명 이상 8곳(1,906명), 500~1천명 1곳(33명)이었다.

◆지역 통계=지역별 통계는 서울·경기 19건, 인천 6건, 경북 3건, 경남 4건, 전북 4건, 전남 2건, 강원 3건, 충청 1건 순이었다.

기사연은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이번 조사 기간 내에 언론에 노출된 소위 '교회발 집단감염'의 사례들 중에는 위 통계 자료에는 누락된 교회들의 수가 총 23곳

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종교시설 집단감염'의 모호한 기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기사연은 “이들 두고 여러 입장과 해석이 난무한 가운데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질병관리청 중앙 방역대책본부 차원에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교시설 집단감염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높아서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발생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라며 “이번 조사연구는 개신교 집단감염의 사례들이 교단, 시기, 규모, 신앙적 성향 등의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려준다”고 했다.

기사연은 “(이는) 소위 '교회발 집단감염'이 한 가지 사례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말해준다”며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다양한 경로로 제기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발적 사고에 의해 발생했고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와 의도적으로 방역에 비협조적이거나 사후에도 비협조적 자세를 유지하는 교회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다양하고 복잡한 기독교 집단감염의 사례들에 대해 차분하게 살펴보고, 집단감염의 발생 건수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이로 인한 개신교 집단에 대한 불필요한 혐오나 사회 갈등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기사연은 “표면적인 취지의 언론 보도나 입장 전개는 일부 개신교회의 또 다른 반감으로 이어져 방역 위기관리 및 현 정부에 반작용적 에너지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따라서 언론이 종교시설 집단감염에 대한 비판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방역 위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범적 사례들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총신대 이사회, 김기철 목사 이사장으로 선출

11일 법인이사회서 투표  
김 목사 8표 얻어 당선



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법인(재단)이사회가 11일, 정이사 체제 이후 두 번째로 가진 모임에서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사

진)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신대 사당캠퍼스에서 모인 총신대 이사회는 김 목사와 장창수 목사(대명교회)를 후보로 투표를 진행했고, 김 목사가 8표를 얻어 당선됐다. 앞서 후보로 거론됐던 소강석 목사(사예텐교회)와 강재식 목사(광현교회)는 후보에서 사퇴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정이사 체제 전환 후 처음 열린 이사회에서는 강재식 목사와 김기철 목사, 소강석 목사가 이사장 후보로 좁혀진 가운데, 합의추대 문제를 놓고 이사회 간 이견이 생겨 끝내 이사장을 뽑지 못했다.

이후 소강석 목사는 두 번째 이사회를 앞두고 '총신 재단이사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소 목사는 이 선언문에서 “잠시나마 구례네 시몬처럼 총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더 이상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을 원치 않기에 이 시점에서 이러한 선언을 하고, 저는 총회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사역에 더욱 매진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교회언론회 “막대한 성인지 예산·계획, 기가 막힐 노릇”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10일 열린 시민단체들의 페미니즘 관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논평을 10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 어린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편향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비밀 조직이 지난 4년간 활동해 왔는데, 이것이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발각이 되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논란이 된 청원 내용이 근거다. 청원인은 “5월 5일 새벽 인터넷을 통해 교사 집단 또는 그보다 더 큰 단체로 추정되는 단체가 은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사상(페미니즘)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최소 4년 이상을 암약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마음이 쉽게 흔들릴 만한 어려운 처지에 처한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세뇌하려 하고 자신들의 사상 주입이 잘 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해당 학생을 따돌림을 당하게 유도하는 등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행동까지 서슴치 않으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현재로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라면 최소 4년간 수많은 학생에게 조직적으로 은밀히 자신들의 사상을 세뇌하려 한 사건일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페미니즘 교육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피해망상으로 남성에 대한 혐오로 나타나며,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교육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서로가 견원지간(犬猿之間)처럼 싸우고 혐오와 범죄를 저지르는 평행의 집단이 아니라, 서로 차이를 보완하고 사랑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존귀한 상대”라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을 부추기고, 그 활동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정부이다. 정부 조직에는 '여성가족부'가 있는데, 이곳에서 국가 예산과 계획을 짜서 페미니즘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여성가족부에 '여성'과 '가족'은 없고,



**장신대 개교 120주년**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직무대행 김운용)가 개교 120주년 감사예배 및 기념행사를 11일 오전 교내 한경직기념예배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개교기념 감사예배, 2부 기념행사, 3부 120주년 기념 전시회 개관식 순서로 진행됐다. ▶관련기사2면 ©노형구 기자

이데올로기로 무장하여, 여성의 차별을 해소한다는 빌미로 남성을 혐오하고, 성(性)을 폄하하는, 그야말로 '가족해체부' 역할을 하고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거기에는 정부는 연간 막대한 '성인지' 예산을 세워, 국가가 집행하는 예산이 남녀가 동등하게 수혜를 받았는지 평가한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38개 중앙행정기관의 성인지 예산이 304개 사

업에 35조 원이 잡힌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정부가 별짓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페미니즘으로 포장하고 지지하는 세력들을 막아 살리려는 것은 아닌가? 2021년 우리나라 예산은 558조 원인데, 이 중에 6.2%를 '성인지' 예산에 사용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참고적으로 올해 국방예산은 62조

원”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국민이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엉뚱한데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것이 아니냐”라며 “이제부터라도 국민들과 학부모,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이런 잘못된 정부의 예산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청년다니엘기도회  
운영팀장 주성하 목사 >> 3면

할렐루야교회 변혁팀  
'2021 변혁 워크숍' >> 7면

김명엽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와 찬송” >> 22면

## 역삼 센트럴 2차 아이파크 공급공고

강남 핵심의 가치, 아이파크의 자부심!

-강남 8학군, 선릉역·한티역, 롯데백화점, 영동대로 삼성역 복합개발, 르네상스 업무시설개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 16910호(2020.10.2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2-5
- 공급규모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지상2~7층, 부대복리시설 외
- 입주예정일 : 2022년 06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획	
구 분	예 금 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획	KB국민은행
	계좌번호 750601-01-288923
	아시아신탁(주)

###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계약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금 무통장 입금증</li> <li>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li> <li>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 1통</li> <li>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li> </ul>
법인 계약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금 무통장 입금증</li> <li>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및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자 사용인감 1통)</li> <li>법인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외국법인인 경우 : 관련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li> </ul>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 시 상기 서류 이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li>-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주락전시관 내 비치)</li> <li>-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도장</li> </ul>

※ 상기 제출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전예약방문 필수**

분양문의 02) **547-1126**

시행·자문관리 **A+** 아시아신탁 위탁 (주)탑파트너스 시공 **HDC** 현대산업개발

**주택수  
미포함  
결정!!!**

